

경제, 인구와 삶의 질

경제와 산업

지난 60여 년 대한민국의 경제 변화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에 힘입어 특정 산업 분야 중심의 수출 지향적 발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대내외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구조 조정의 압력이 강해졌고, 인적 자원 개발, 연구 개발 활동, 혁신성 증대 등의 노력이 전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발전의 동력이 정부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옮겨졌고,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커졌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은 농업이 주된 경제 활동인 1차 산업 중심의 경제 체제와 산업 구조를 보였다. 농업 분야가 국내 총생산의 40% 이상, 취업자의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제조업은 국내 총생산의 20% 미만, 취업자의 10% 미만을 나타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한 본격적인 경제 성장에 돌입하는데, 이때부터 제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정부 주도형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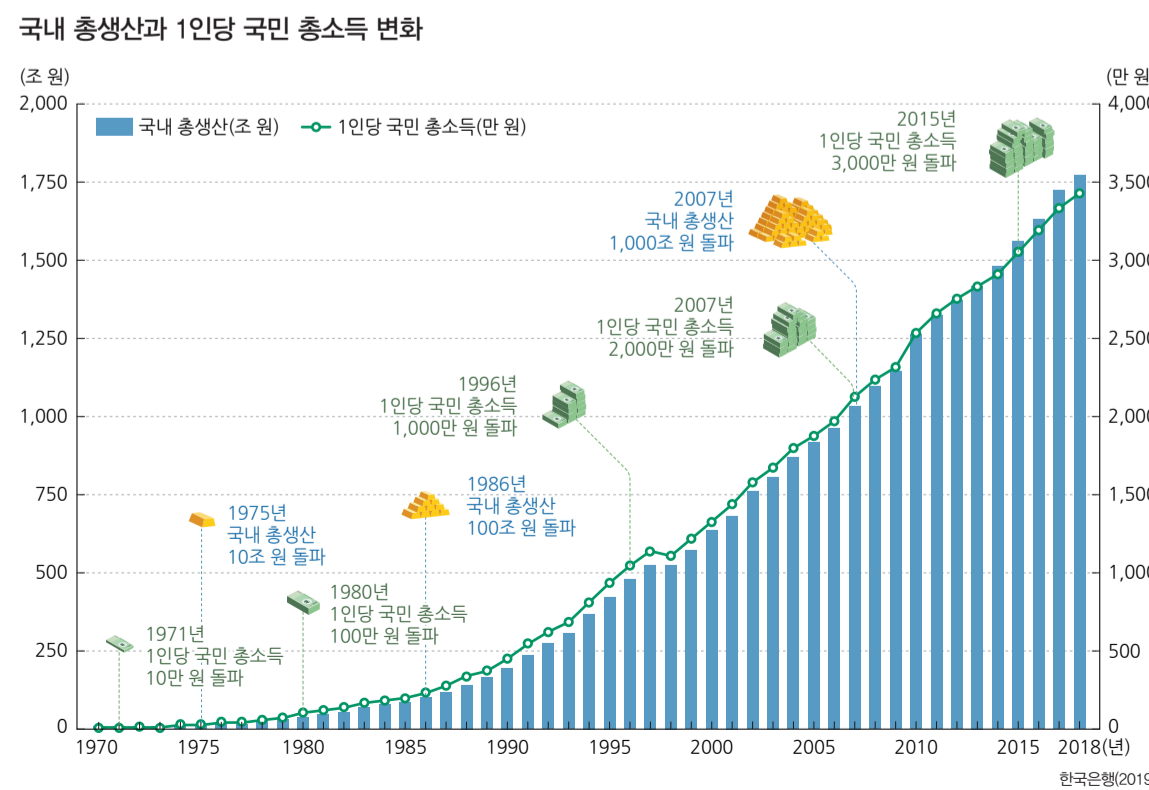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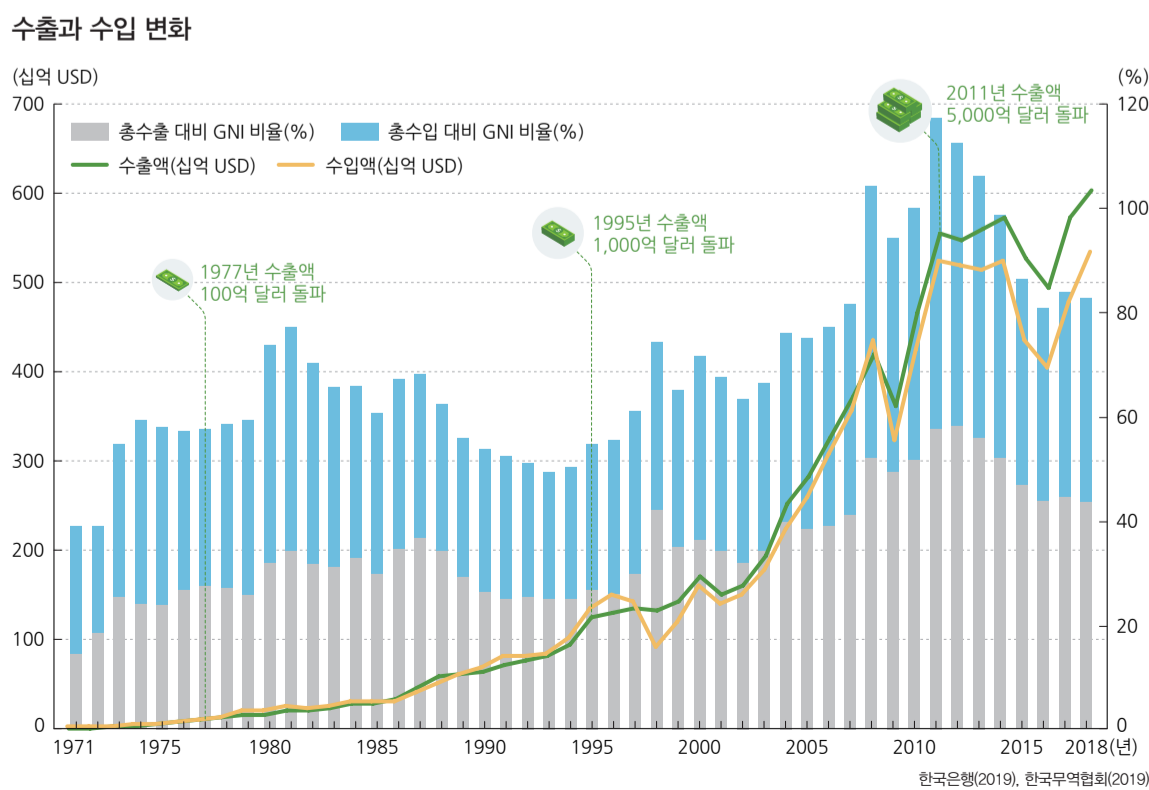
다. 1960년대에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전략을 추진하여 섬유, 제철, 합판, 가발, 신발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 부터는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고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반도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 산업 제품들이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수출 지향 산업 정책에 따른 수출 산업의 발달이다. 수출액과 수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몇 번의 경제 위기는 있었으나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1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이래 6년 만에 10배인 100억 달러를 넘었고, 24년 만인 1995년 1,000억 달러를 넘는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2011년에는 수출액 5,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2000년 중반에 수출이 주춤했다가 2018년에는 다시 회복하여 6,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명목 기준)은 1960년 세계 31위, 1970년 32위, 1980년 28위를 기록한 이후 19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1985년 18위, 1990년 15위, 2000년 12위로 도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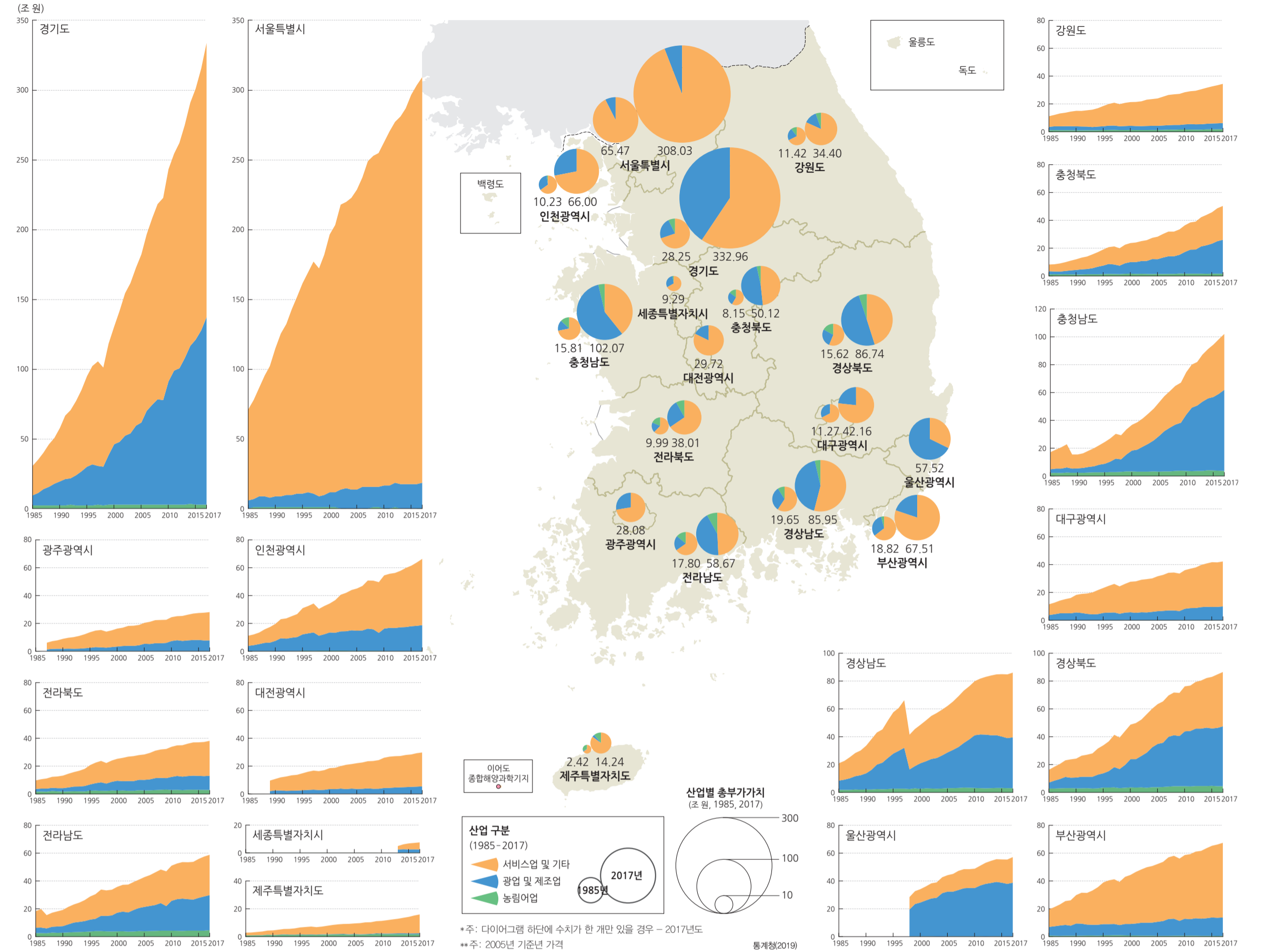
그러나 이후 11~15위권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고, 2018년에 12위를 기록하였다. 국내 총생산의 증가를 살펴보면, 1975년 10조 원을 넘어고, 11년 만인 1986년에 10배인 100조 원을 돌파하였다. 10조 원 돌파 30여 년 만인 2007년에 100배인 1,000조 원을 돌파하여 압축적 경제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의 충격으로 1998년 한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71년 10만 원이었던 것이 9년 만인 1980년 100만 원을 돌파하였고, 이후 16년 만인 1996년에 1,000만 원을 넘었다. 2007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 2,000만 원, 2015년에는 3,0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화와 세계화는 국토 공간에 투영되어 산업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 산업 정책으로 특정 지역 중심의 거점 개발 방식이 이루어졌고, 수출 지향적인 산업 발달로 수출입에 용이한 남동 해안 지역 도시들이 공업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적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권 공장 규제, 산업 시설 지방 이전, 지역 산업 및 클러스터 육성 등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산업 구조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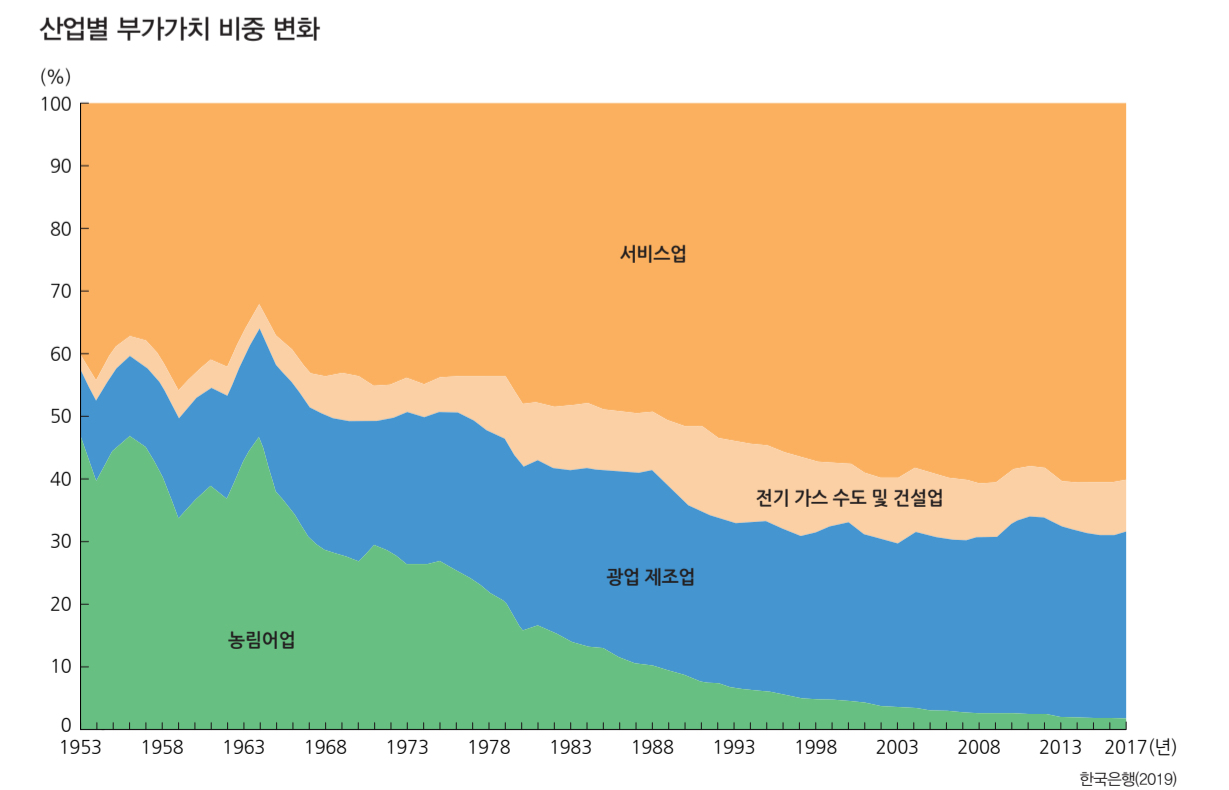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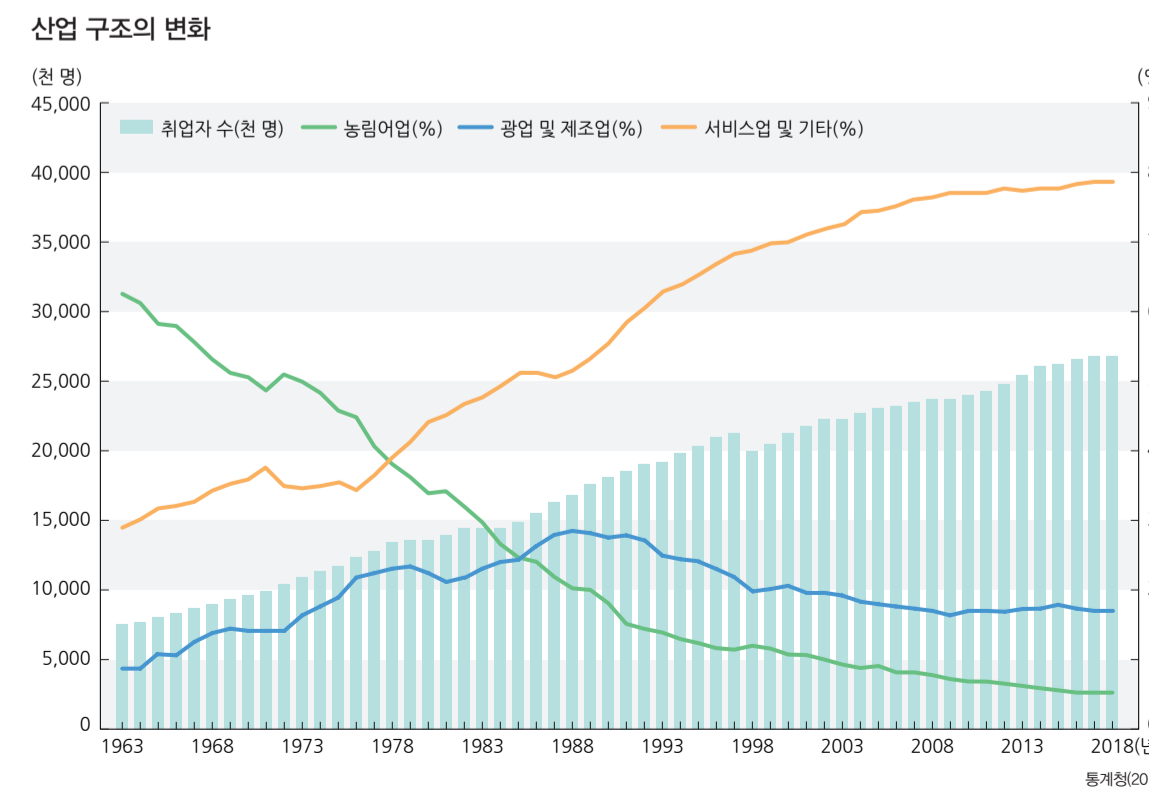
지역 내 총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중 변화



산업 구조 변화는 일반적으로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의 비중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부문별 취업자 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1960년대 이래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감소, 광업 및 제조업의 증가와 감소,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의 지속적 증가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농림어업 비중 감소와 제조업 비중 증가의 산업 구조 변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선진국들이 몇백 년 동안 겪은 변화를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한지 30여 년의 기간 동안 겪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산업화의 가장 큰 특징은 압축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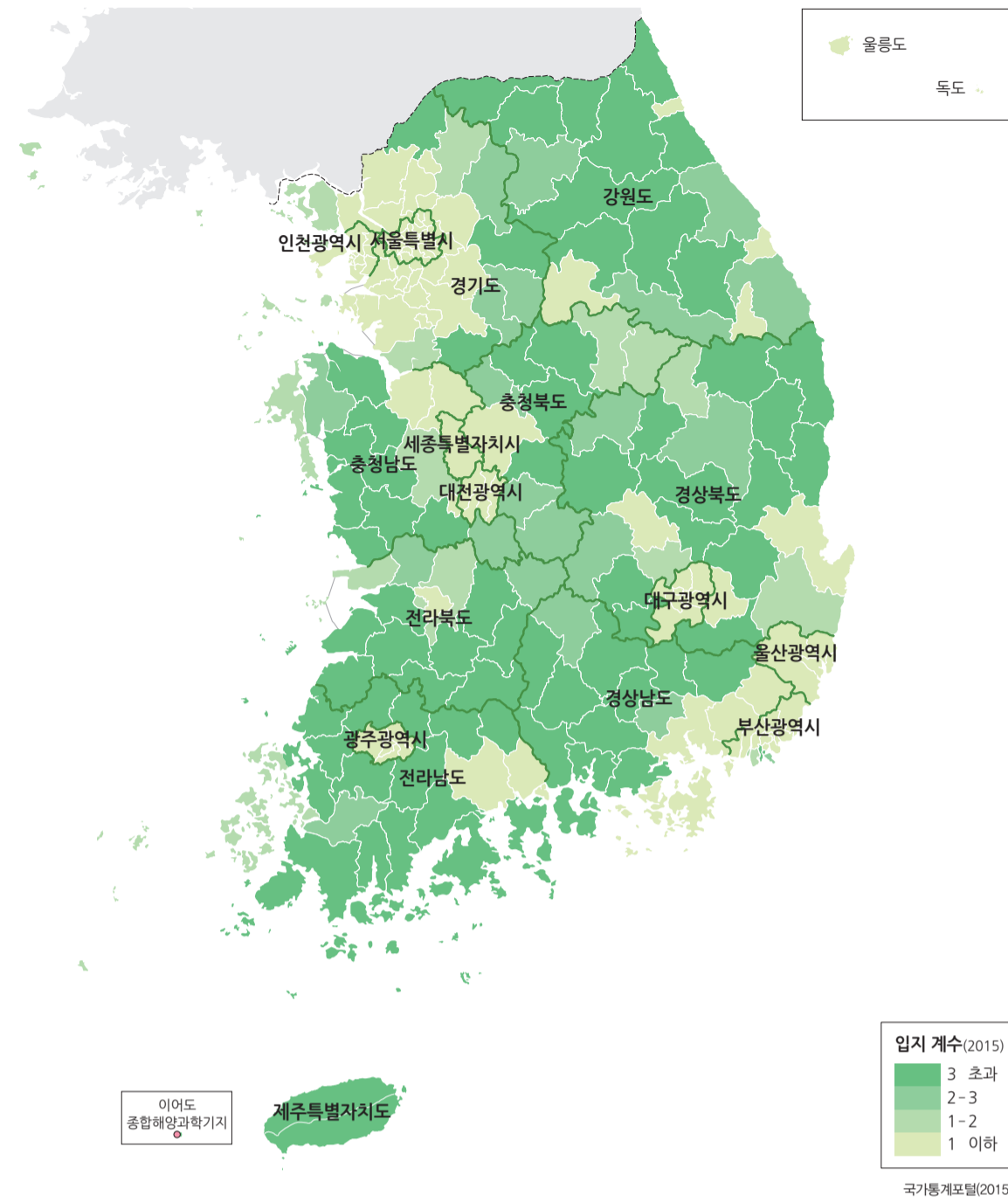
1985년과 2017년의 지역 내 총부가가치 변화를 통해 시도별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32년 동안 총부가가치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급성장을 파악할 수 있는데, 1985년 서울 63조 원, 경기도 27조 원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 2014년에 경기도가 서울을 앞지기 시작하여, 2017년 서울 308조 원, 경기도 333조 원으로 역전되었다. 모든 지역에서 농림어업의 비중 감소가 나타났고, 광역시는 제조업 비중 감소와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의 비중 증가가 특징적이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제조업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수도권 남부에서 충청도로 이어지는 제조업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를 통해 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1950년대 40%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대 2%대로 하락하였다. 제조업은 1950년대 12%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8년 31%를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대 후반 다시 증가하여 2011년에 31.5%를 기록하고 30%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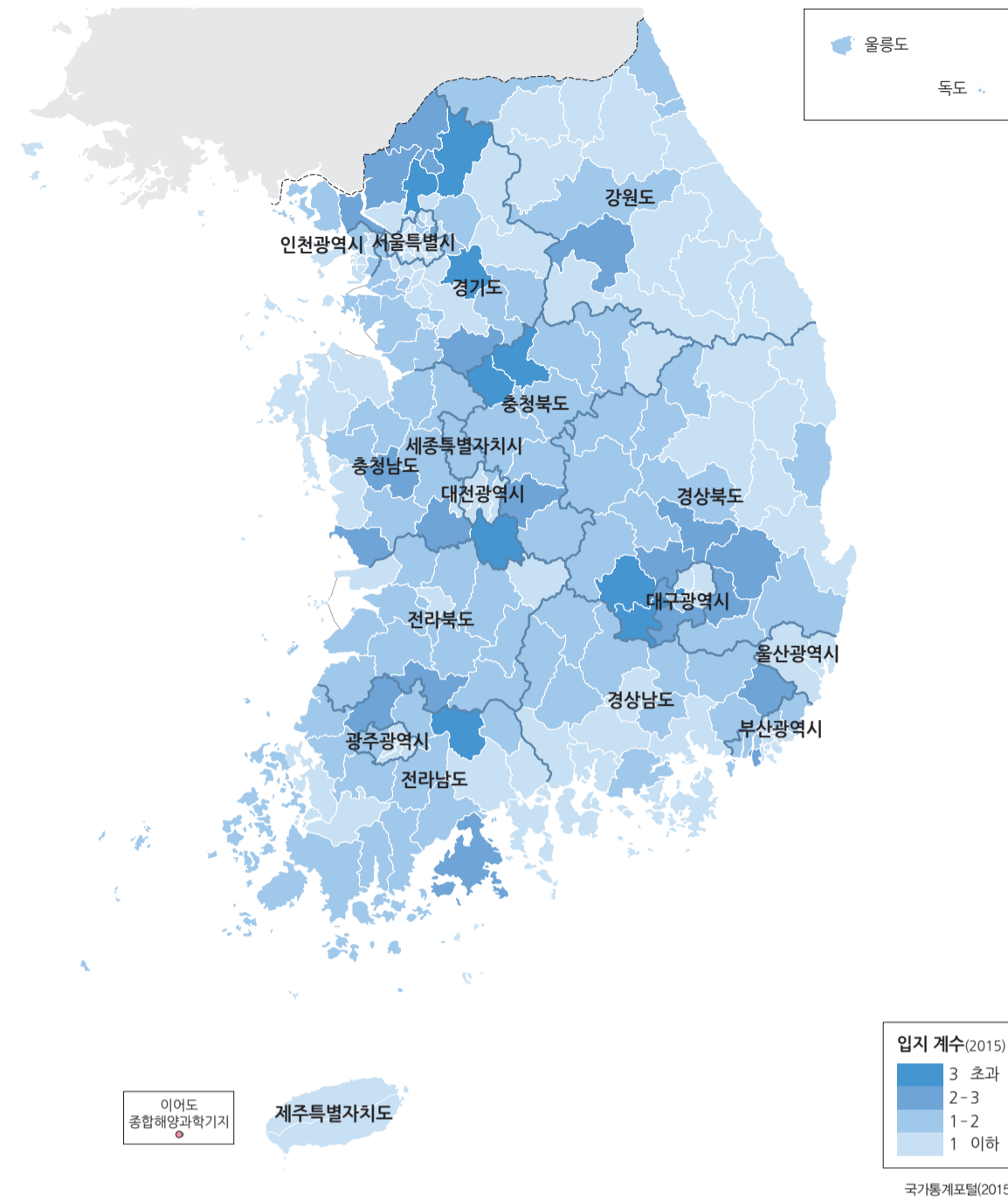


산업별 입지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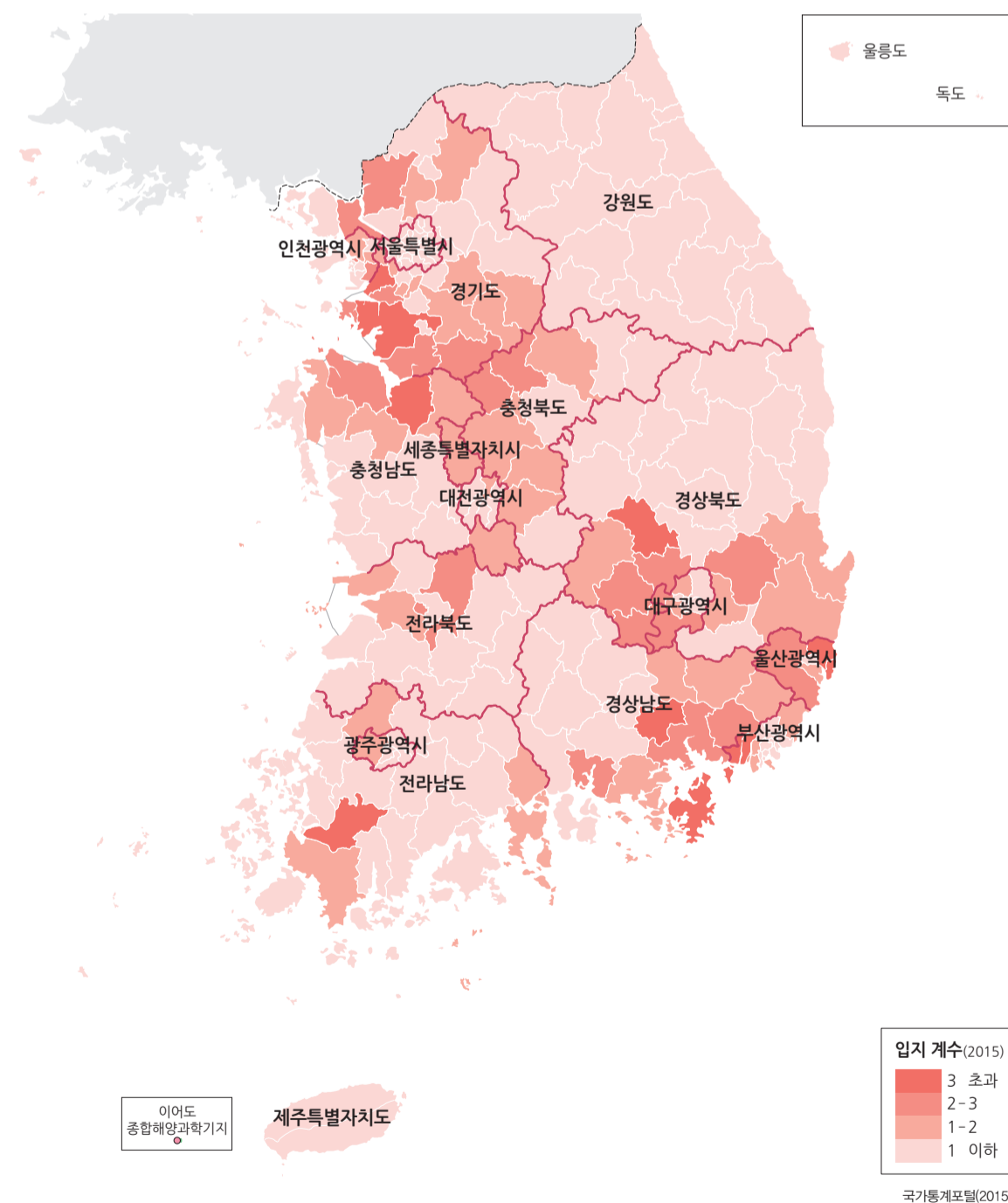
농림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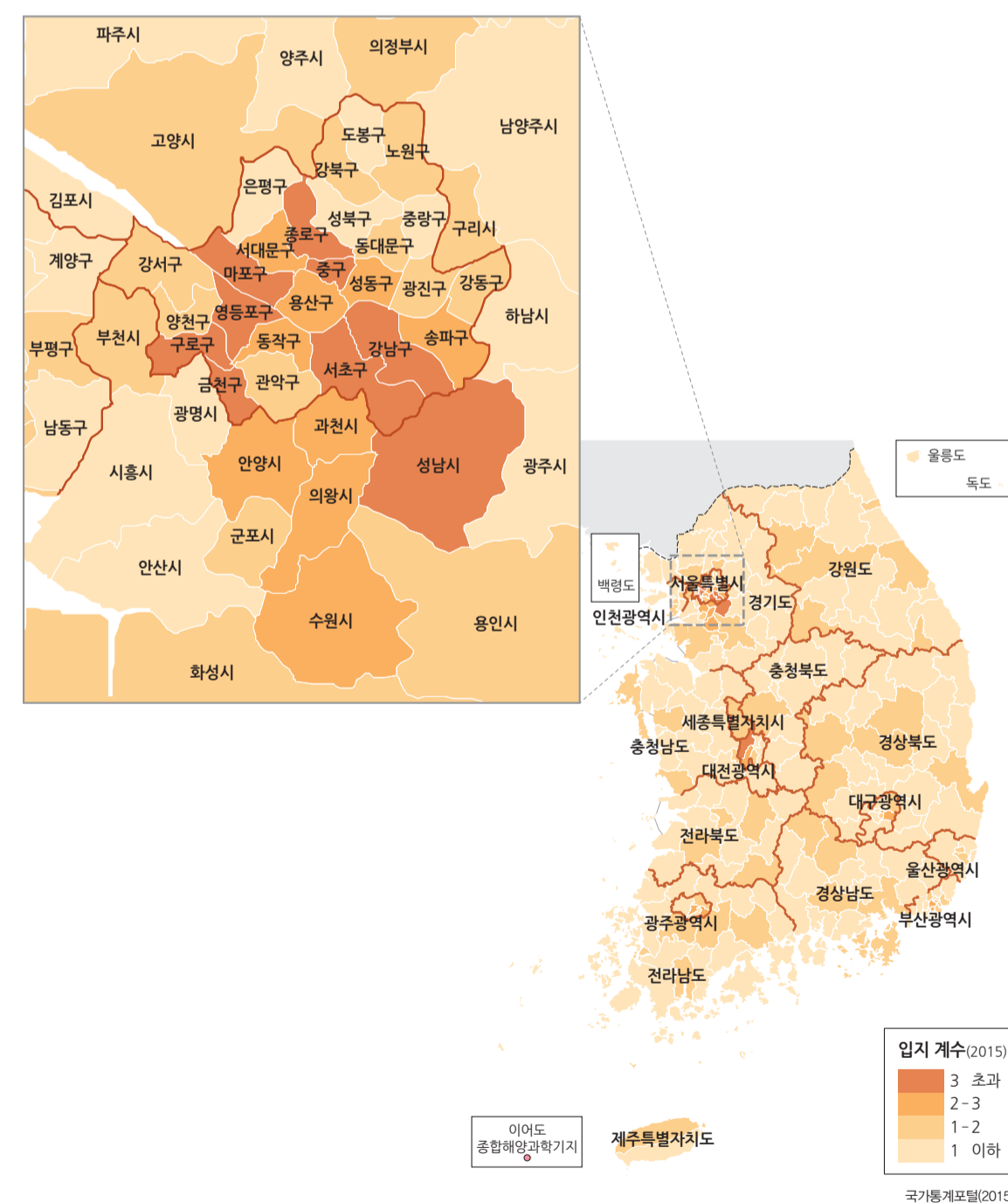
경공업



중화학 공업



지식 집약 서비스



입지 계수는 지역의 산업 특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특정 산업의 전국 점유율에 대한 지역 점유율의 비중(종사자 수 기준)을 나타낸다. 대개 입지 계수가 1 이상이면 해당 산업이 특화된 것으로 본다.

제조업은 크게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으로 구분되는데, 경공업은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및 인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가구, 기

타 제품 제조업이 포함된다. 중화학 공업은 펄프 및 종이 제품, 석유 및 화학 제품, 의약품,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및 금속 가공 제품,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및 운송 장비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지식 집약 서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식 집약적 시장 서비스업의 정의를 따라 구분하였는데,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의미

한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호남과 강원 지방에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다. 산업은 전반적으로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특히 중화학 공업은 수도권 남부와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도가 뚜렷이 나타난다. 한편 지식 집약 서비스는 서울 강남 지역의 집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업 구조와 혁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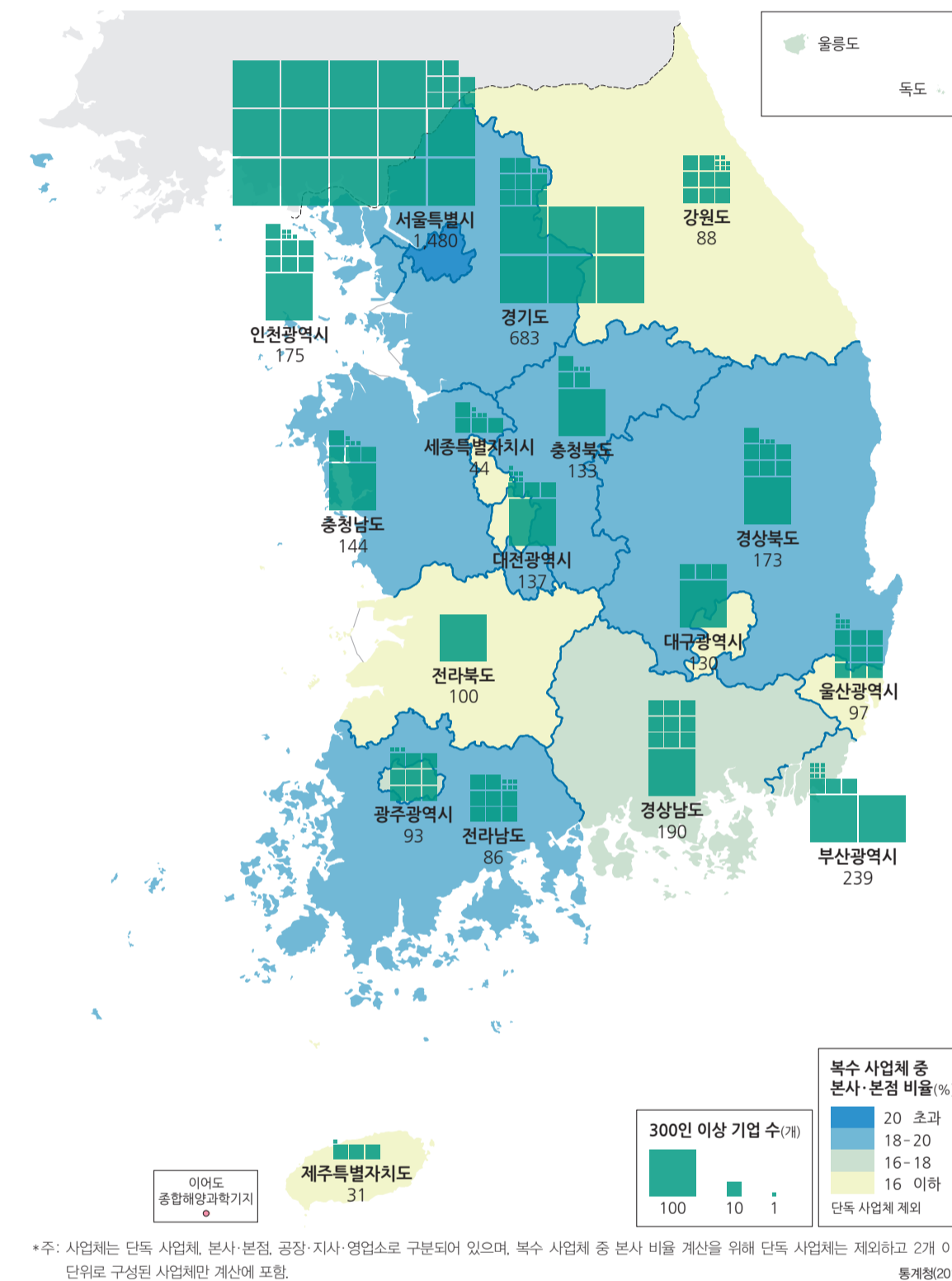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수출 산업 분야는 대기업이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출하액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상위 50대 기업이 43%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37%는 서울에, 17%는 경기도에 입지하는 등 수도권 비중이 58%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복수 사업체의 66%가 수도

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관리 통제 기능의 수도권 집중을 보여 준다. 대한민국의 산업은 1970년대 초까지 경공업 중심의 요소 주도형 산업 구조를 유지하였고,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중화학 공업 중심의 투자 주도형 산업 구조로 전환되었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는 기술 개발 투자와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한 혁신 주도형 산업 구조로 변화했다. 제조업 부문별 총부가가치로 살펴본 제조업 구조의 변화를 보면, 1970년대 초반 섬유 의복과 음식료 등 경공업 비중이 높았으나 지난 40여 년 간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등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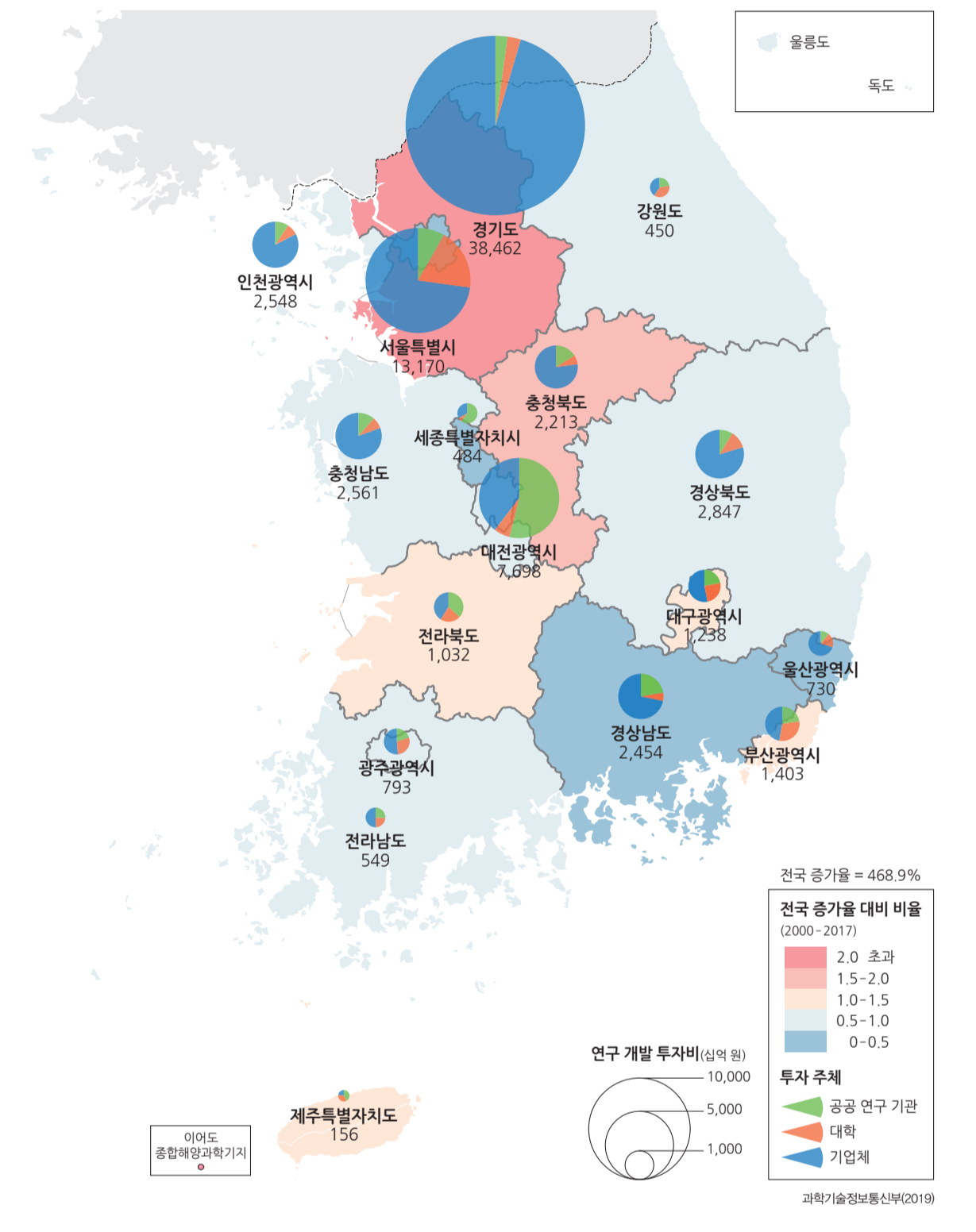
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 부문으로 중심이 이동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연구 개발 투자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 GDP 대비 1% 미만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부터 4%가 넘어 2017년에 4.6%를 나타냈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성장세가 빠른 것이다. 주체별 연구 개발 투자비 비중은 1970년대까지 공공 연구 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1980년대부터 기업체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대 말부터는 기업체 비중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 조직 및 규모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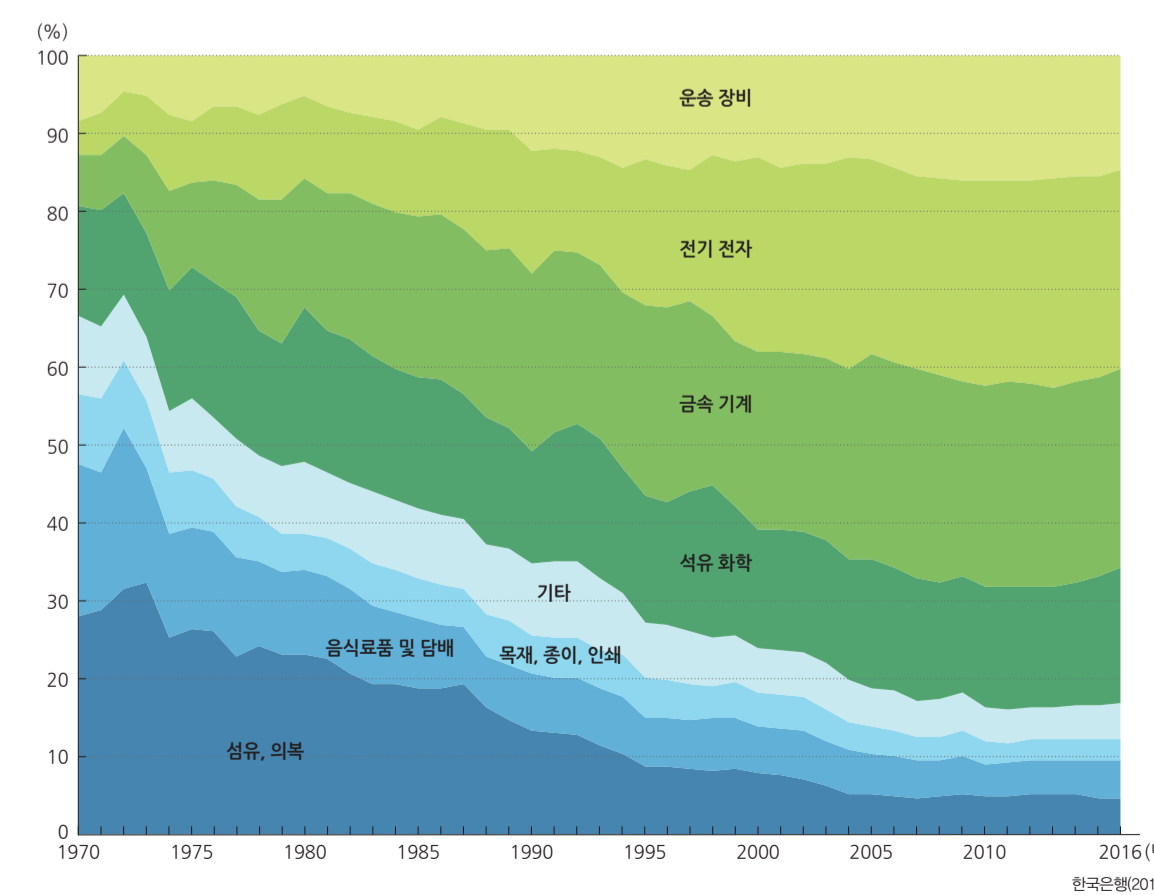


*주: 사업체는 단독 사업체, 본사-본점, 공장-지사-영업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복수 사업체 중 본사 비율 계산을 위해 단독 사업체는 제외하고 2개 이상 단위로 구성된 사업체만 계산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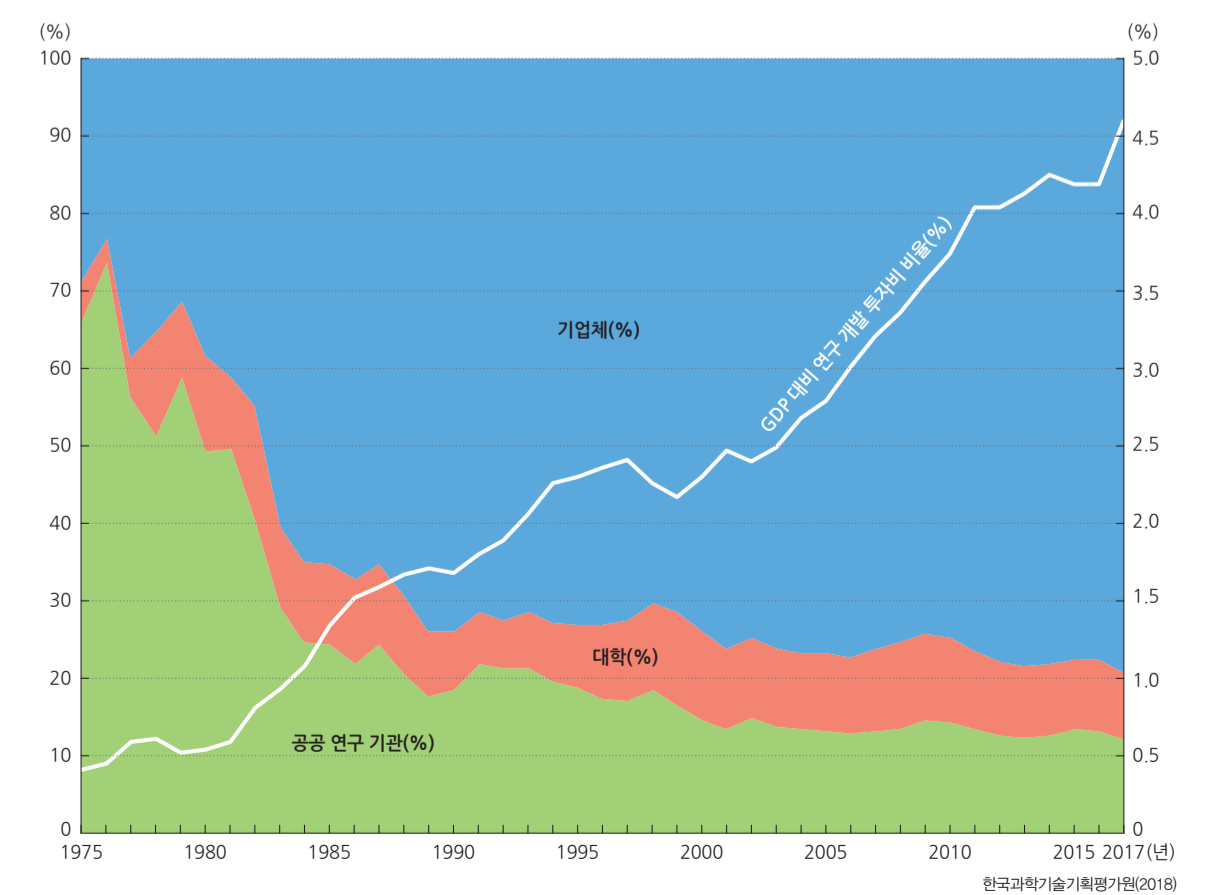
시·도별 연구 개발 투자 현황



제조업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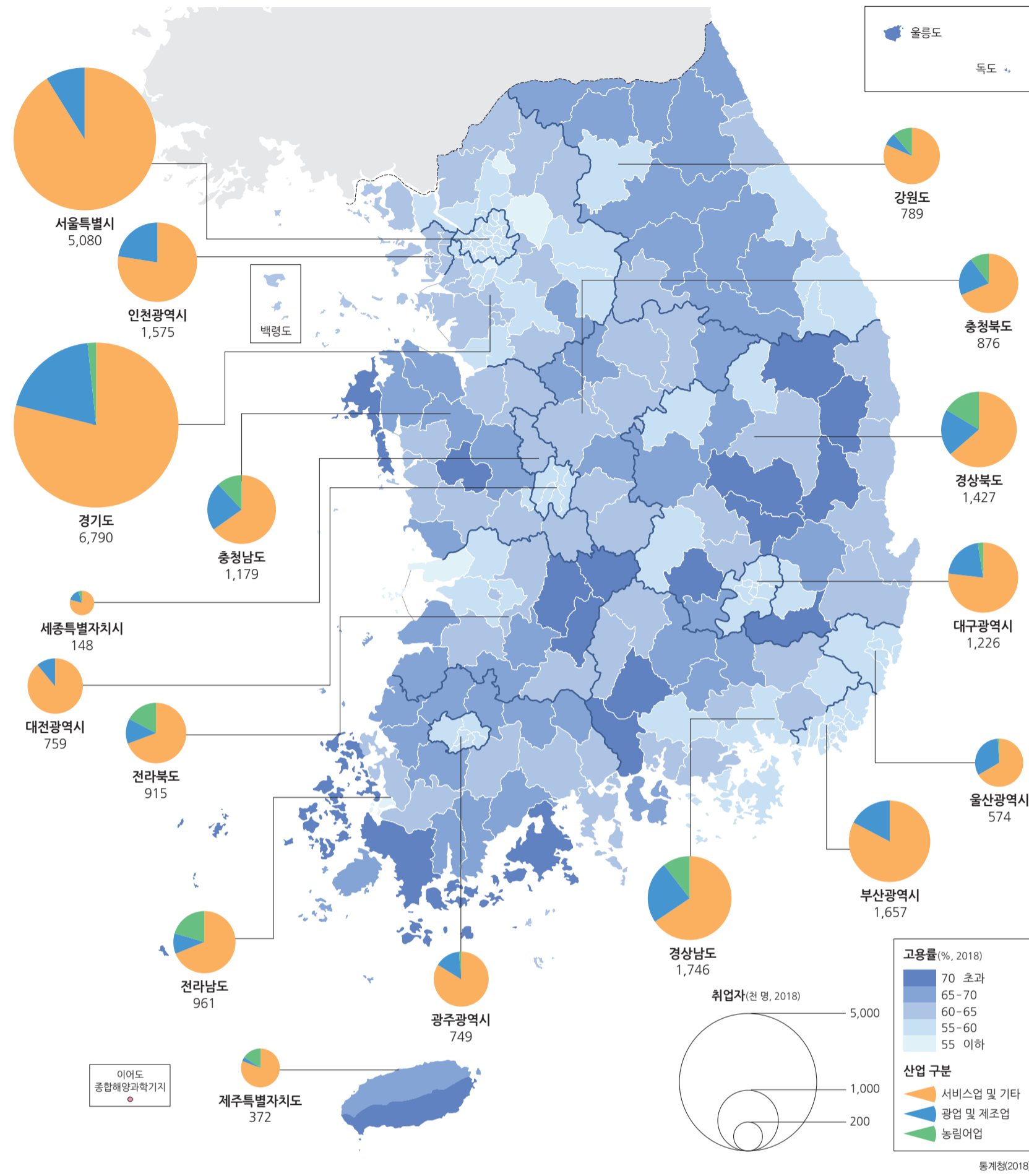


주체별 연구 개발비 비중 변화



국민 경제 활동의 변화

고용률과 산업별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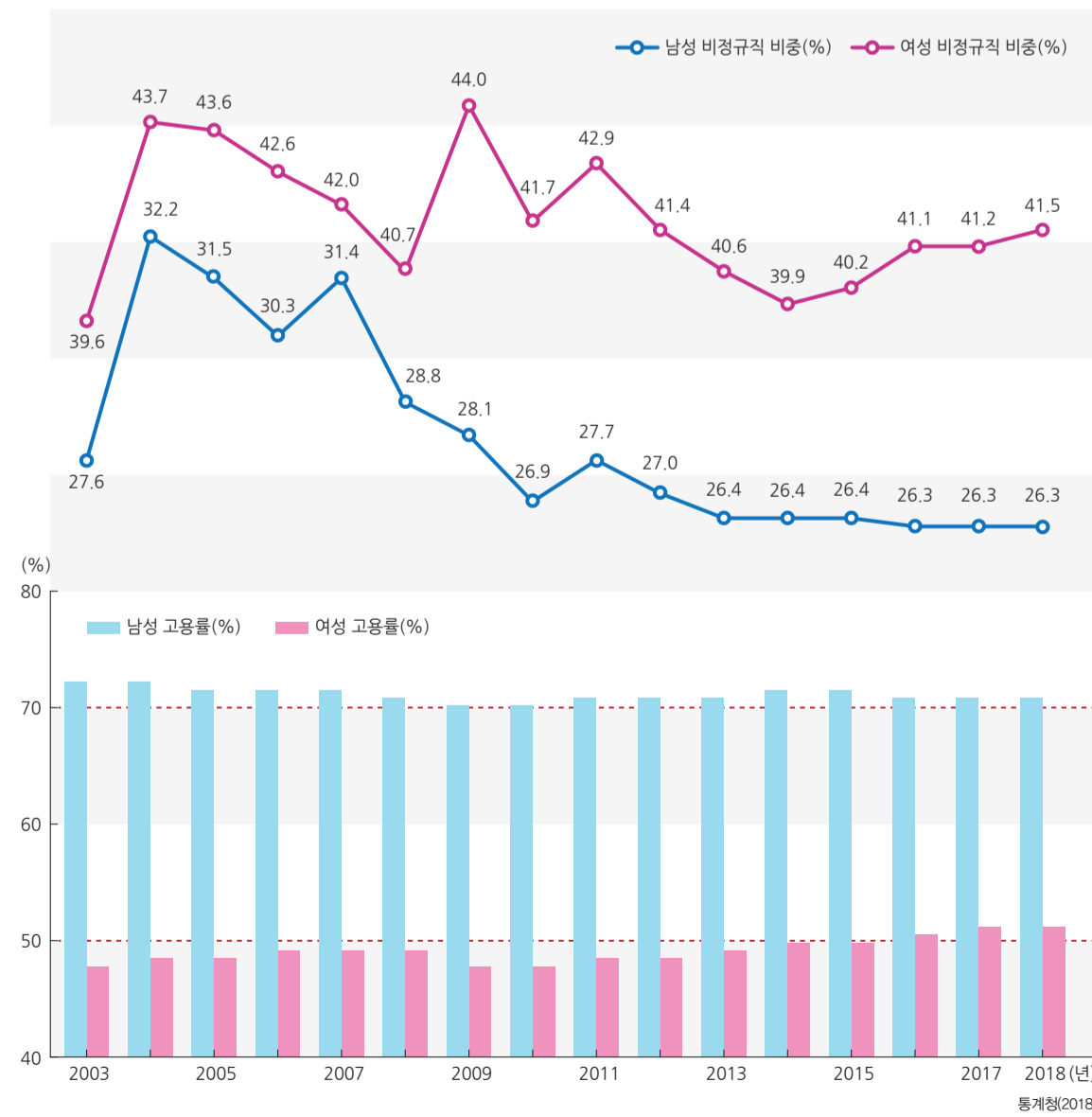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몇 차례 위기가 있었고, 이는 국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초반과 후반 두 차례의 석유 파동, 1980년대 후반 노동 쟁의와 임금 상승에 따른 경쟁력 하락,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가 대표적이다. 이에 고용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 국민 경제 활동 전반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공공 및 민간 여러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복지 확충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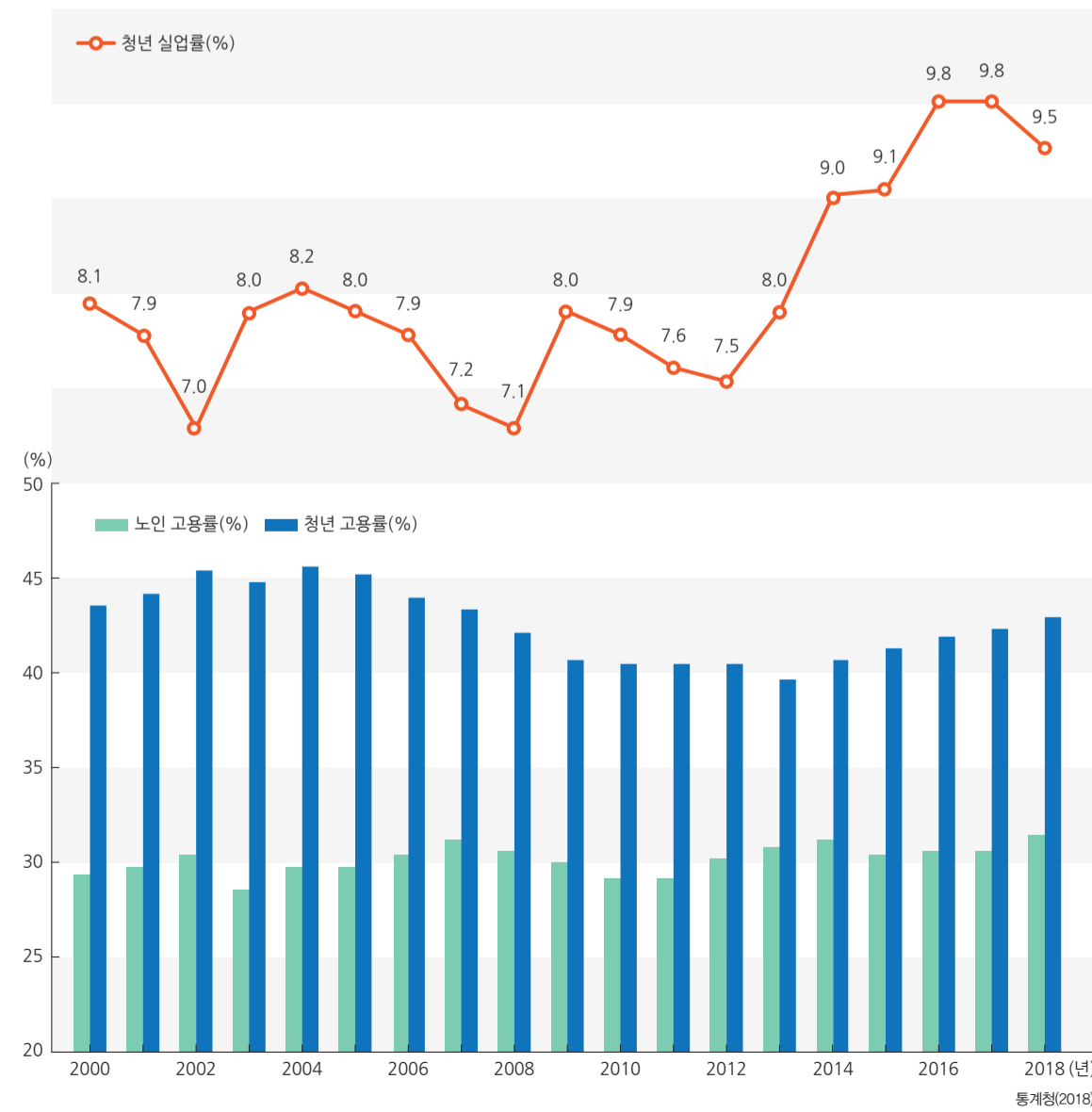
국민 경제 활동을 고용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용률은 대체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 지역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한편 실업률은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인구 대비 실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곳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농촌 지역은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로 세대 간 부양 및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자녀 세대에겐 부양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2018년 고용률은 남성 70.8%, 여성 50.9%를 나타내는데, 지난 15년간 남성은 하락, 여성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으며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고용 증가가 비정규직과 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 부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1.3%,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7%를 나타낸다. 청년 실업률은 2000년대 초반 7%대에서 2017년 9.8%까지 상승하여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위 소득 50% 이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65.5%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여 준다.

성별 고용률과 비정규직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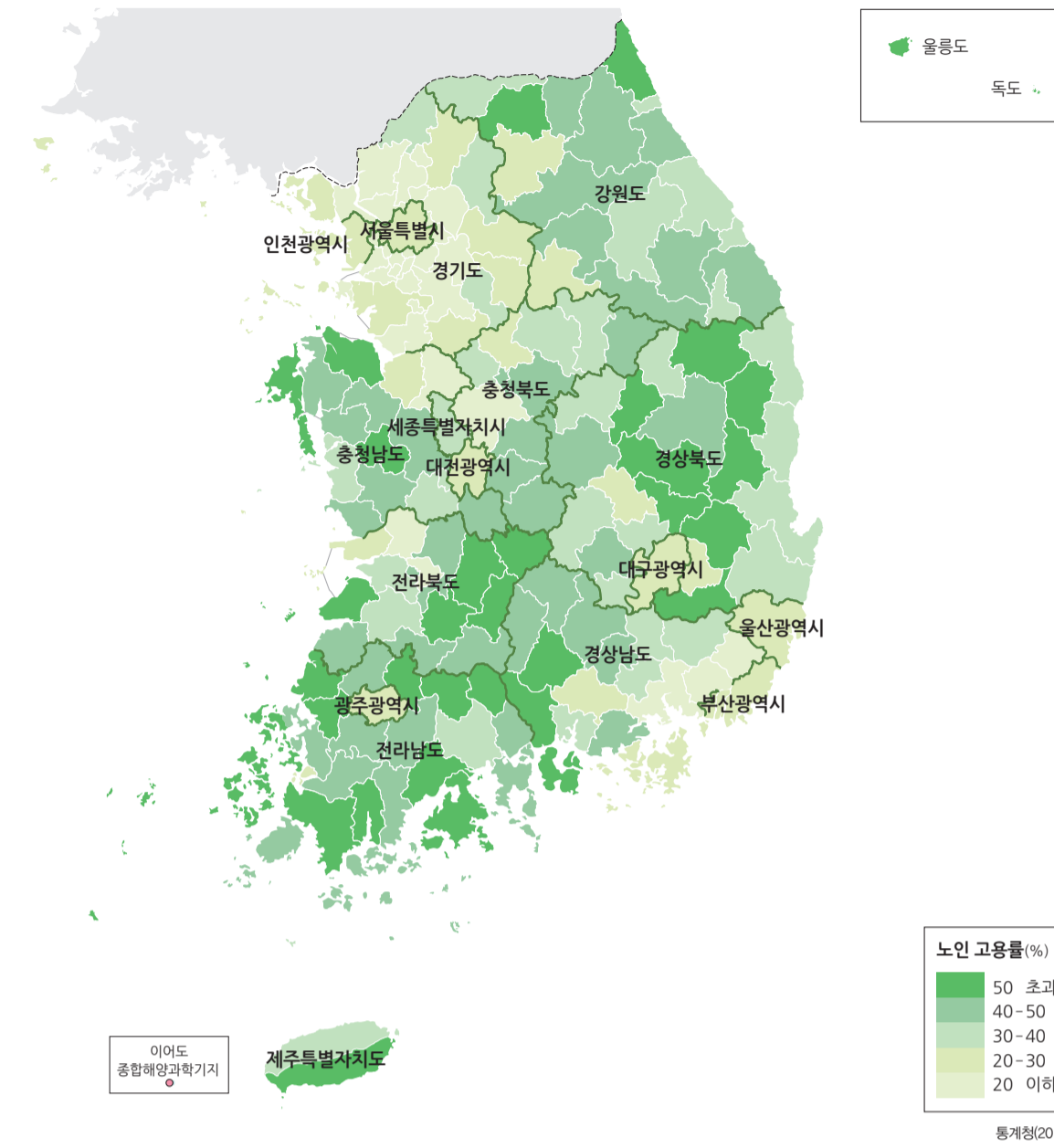


연령별 고용률과 청년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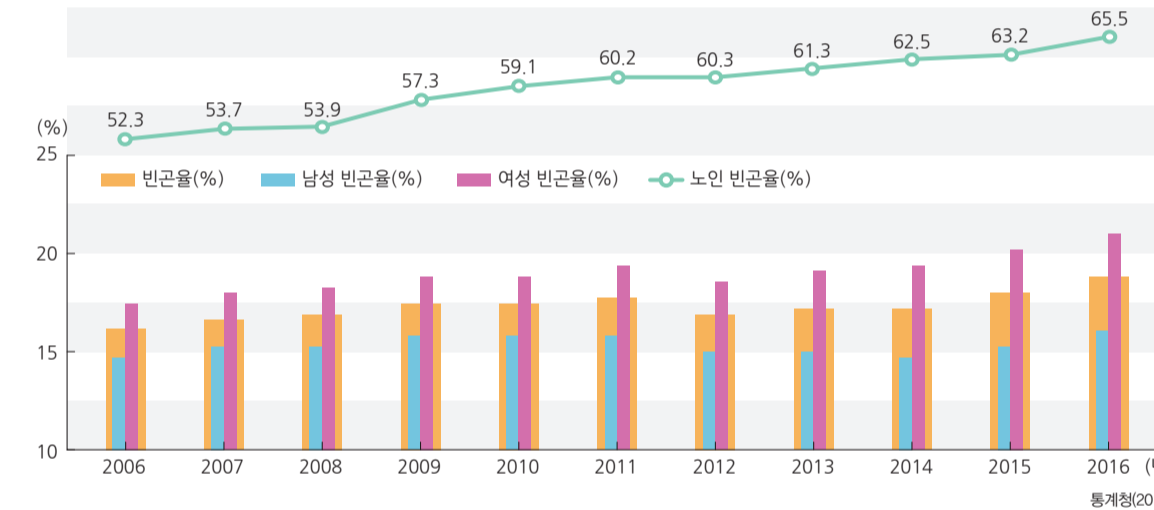


사회적 경제와 포용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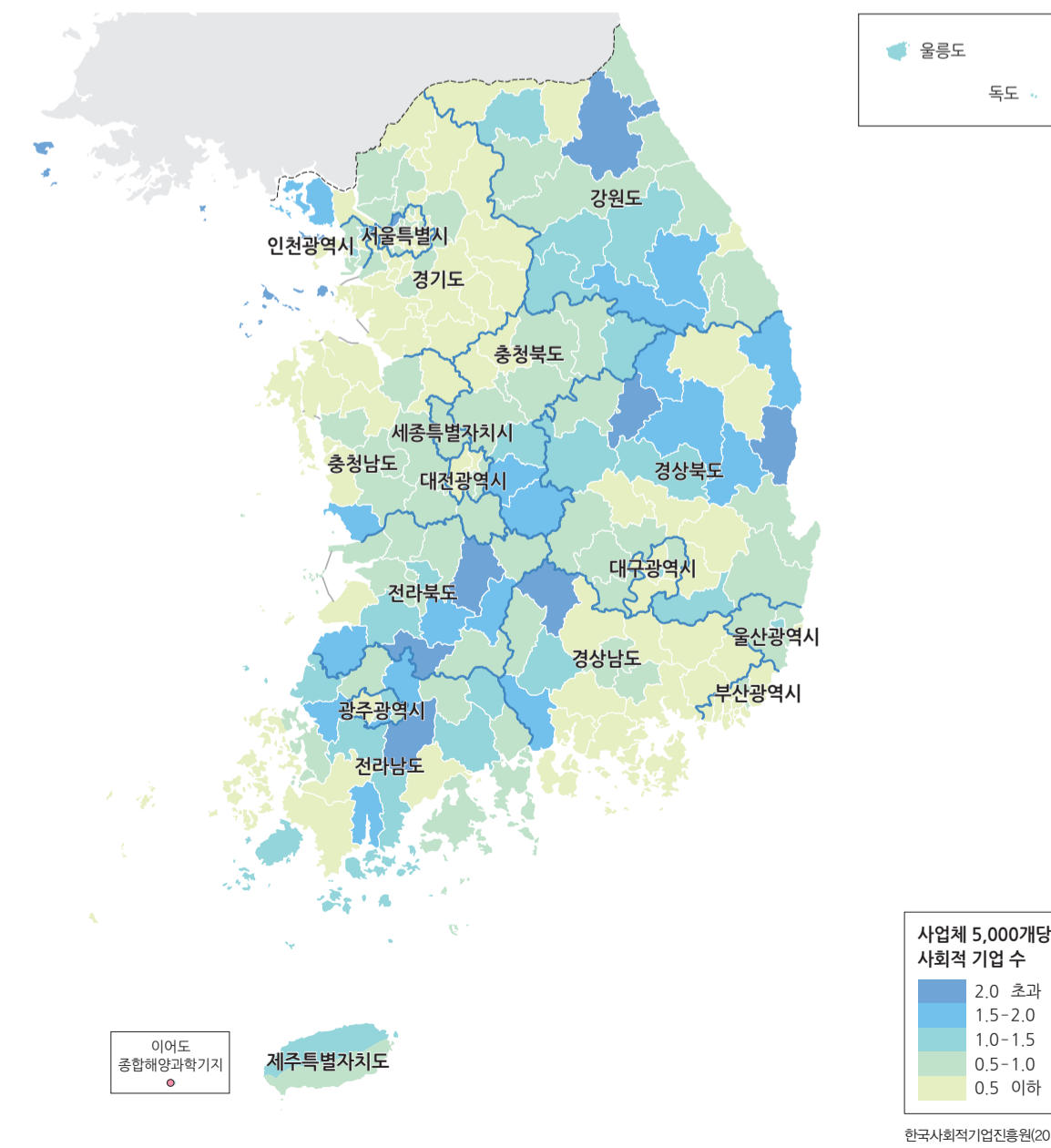
노인 고용률



빈곤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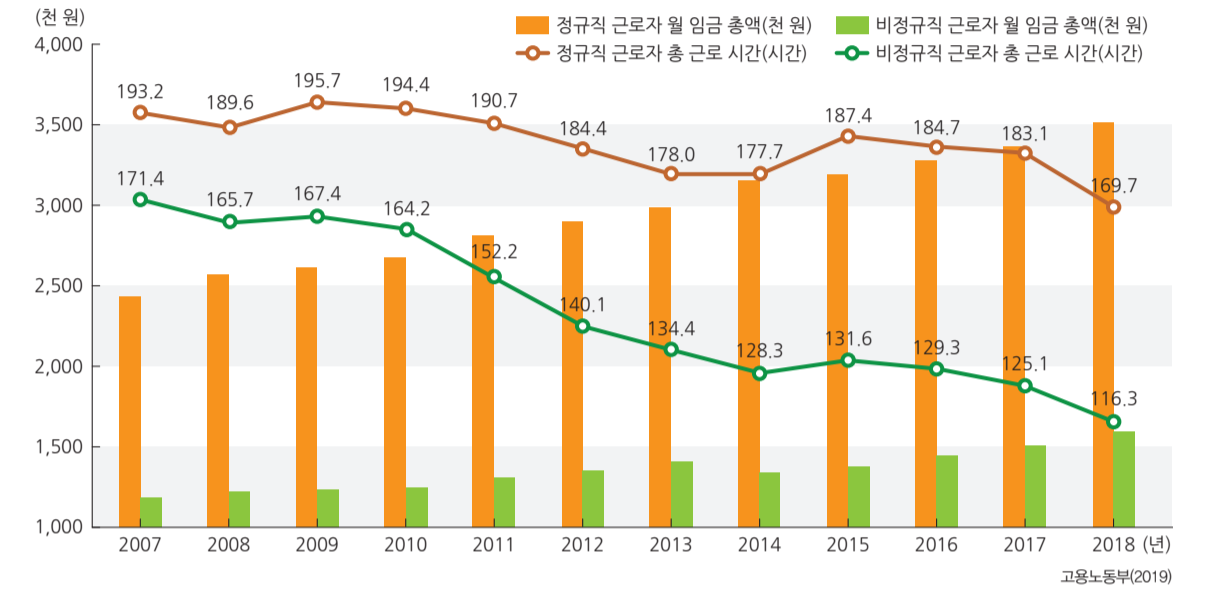


사회적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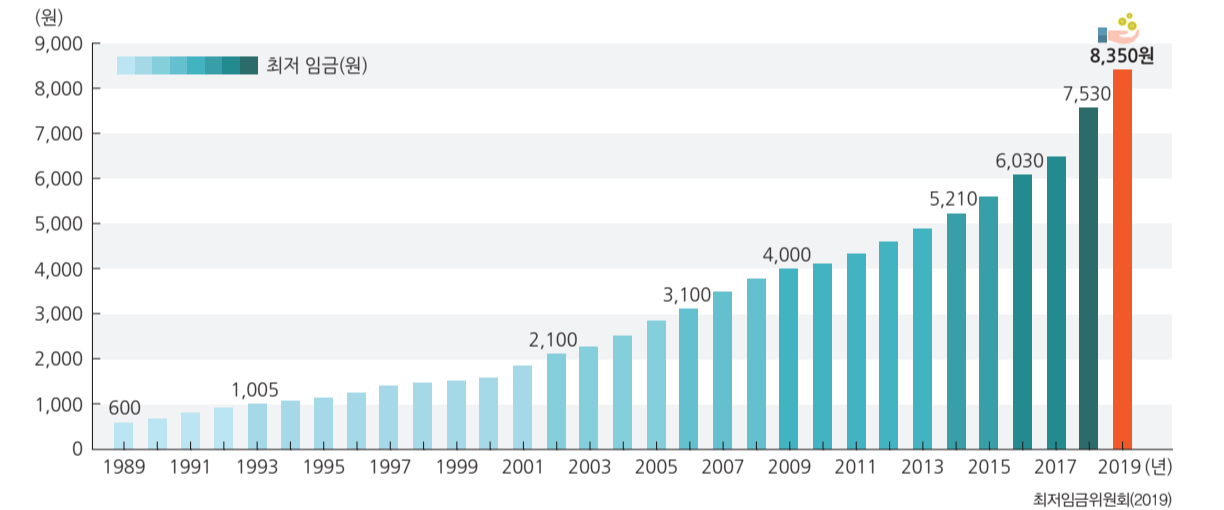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국가 주도적 수출 지향 경제 발전 전략은 1990년대 후반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가 주춤하였고 실업률이 치솟았으며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라는 경제적 목적의 추구와 동시에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소비에서 소외된 공동체를 참여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대한민국은 사회적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들 수 있고, 소셜 벤처와 임팩트 투자 등도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포용적 성장' 논의와도 관련되는데,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성장을 의미한다. 정책적으로 노동 시장의 불균등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 시간 비교



최저 임금 변화



협동조합 분포

